

‘남’이 아닌 ‘나’를 깨뜨리고 성장시킨 운동

이 호

“이호 씨,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거기 머리오. 나는 그나마 부족한 머리가 더 빠지는 줄 알고 걱정했지 뭐예요”

몇 가지 씩씩한 기억들

철거 용역반과 대치하던 중소위 ‘깍두기’ 머리를 한 건장한 용역반원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집어던져졌던 나를 보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깔깔 웃으며 한 말이다.

그 날도 철거 용역반원들이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 우리 동네에 들어왔고, 주민들과 함께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진 후 주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당시의 긴장됐던 순간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날 강제철거를 막던 아주머니 가운데 여럿이 용역반원들에게 한참 얻어맞았지만, 정작 그분들은 내 머리가 빠지는 것이 걱정되더라며 웃고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철거반원이 내 머리를 잡고 위로 들어서 던지니 아주 가볍게 들려 날아갔다느니 하면서….

사실 생존권의 벼랑에 몰린 주민들은 생존권과는 관련이 없던 나보다도 더욱 여유 있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당시 그만

한 여유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 이유는 험악한 강제철거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 지역에서 철거투쟁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오기도 있었던 것 같다.

빈민운동을 하겠다고 6개월간의 현장 활동가 훈련을 받는 동안, 나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개인적으로도 어느덧 중견 활동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나는 봉천동에서 드디어 일을 벌이겠다고 생각했다. 그 일이란 다름 아닌 '철거투쟁의 모범적인 사례 창출'이었다.

이런 잘못된 욕심은 결국 그릇된 과정을 만들어 내곤 한다. 주민들 간의 개인적인 불화와 철거민 단체 간의 오해로 인해 내가 활동하던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서로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진 일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는 일이다. 당시 그런 낡은 꼴을 알아차린 나는 철거민 단체의 임원들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일이 그렇게까지 발전되고야 말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소위 몇몇 '주민 지도자'라는 이들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 나는 한동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몇몇 선배, 동료들과 함께 대둔산 정상에 올라가 그들에 대해 큰소리로 욕을 하고 나니 속이 조금은 풀렸다.

그런데 한참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그토록 분노했던 것은 내가 정성 들여 추진해 온 일을 몇몇 주민 지도자라는 이들이 망쳤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장악하고 있다고 여겼던(실은 착각이었지만) 주거대책위원회의 주도권이 이 사건을 통해 허상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 가난과 싸우며 나름대로 삶의 족적을 남겨 왔던 그 주민들을 단지 활동가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은 커다란 착각임에 분명했다. 물론 당시의 나는 그런 관점에 대해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입장이었지만,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런 관점, 활동가 위주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이 사건은 나를 한층 더 성숙한 운동가로 키워준 사건이 됐다.

내가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소위 '주민 지도자' 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였다. 나는 나름대로 주민 지도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실상 그 기준은 매우 높고 엄격한 것이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지금도 쉽게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당시,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내 자신 역시 그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면 그 언저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주민 지도자들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닦달하고 했으니...

이런 시행착오, 생각할수록 창피했던 나의 활동 경험은 굳이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관악주민연대>를 만들고 나서 가졌던 첫 번째 수련회는 지금도 가끔 후배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당시 <관악주민연대>의 방향을 둘러싸고 한 친구와 심한 언쟁을 벌였는데, 문제는 거의 한 시간 동안 두 사람만이 발언을 독점하며 언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판단이 그렇게 옳았던 것도 아닌 듯한데, 그때는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다. 과연 내 주변의 동료들이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보다, 동료들의 생각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므로써 대부분의 동료들을 논의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내가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현장활동을 해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 활동경력에 있어 가장 부끄러운 멍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사건은 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이후 나는 앞장서서 무엇을 주도하려는 내 욕심을 되도록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맡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직 내공이 부족해 맘에 썩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강호의 고수가 되고 싶다

10년 전쯤인가, 봉천 사거리(당시 나는 봉천3동 산동네에 살면서 활동하고 있었다)에서 먼발치로 아는 사람을 만났다. 반기운 마음에 서둘러 그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은 내 쪽을 잠시 쳐다보더니 반대쪽으로 황급히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순간 당혹스러웠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객골마을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으로, 마을이 철거될 때 소위 철거투쟁을 함께 한 마을 주민이었다. 당시 나는 철거민들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선배와 함께 이들의 철거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었고, 근 보름 이상을 지하철역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함께 했었다. 기쁨을 함께 한 친구보다 고통을 함께 한 친구가 더욱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보고 피했을까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했을 수도, 우연히 나와 반대쪽으로 가야 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나는 그 사람이 분명 나를 봤다고 생각했다.

살아가면서 가끔 빈민지역에서 만나 함께 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생각나곤 한다. 지금은 그 분들과 거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나는 그 분들이 가끔씩이나마 생각나는데, 그 분들도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 고개를 젓게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는 그 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빈민운동의 당위성과 목적성이 그들과 나의 관계를 형성한 가장 큰 동인이었다. 만남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여러 일상을 함께 해왔지만, 그래도 그런 개별적 만남과 관계는 빈민운동의 필요성에 의해 규정된 것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듯하다. 이런 관계는 서로의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당위적 또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것이었다. 그러니 어느 한 쪽이라도 그런 필요가 해소되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철거투쟁은 몇 년이라는 시간을 물리적인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봉천동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 나를 피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 후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빈민운동, 철거투쟁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다. 사실 매우 드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빈민운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내 자신으로부터 생기는 것일 수 있다. 머리로만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술자리의 안주 삼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나의 경험은 결국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삶과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혀 별개의 것임을 깨닫는 과정이 되고 말았다. 이 조그만 사건도 나에게서는 나의 삶과 활동을 반성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내공', '깨달음'과 같은 용어들이 됐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도 아는 것을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내공의 깊이와 깨달음의 정도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기증하는 척도가 된다고 여기게 됐다. 그 삶과 실천을 일치시킬 수 있는 내공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넓고 깊게 맺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말한다. 단지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서로를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런 관계를 지역사회로, 우리 사회 전체로, 나아가 전 세계로 그 외연을 확대해 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운동의 진수라고 생각한다. 자칫 일천한 내공으로 강호에서 멋모르고 까불다가는 언젠가 고수를 만나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내공을 쌓아가고, 또 그 쌓은 내공만큼만 이웃들과 소박하게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다 보면 또 알겠는가? 어느 날엔가 고수가 되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

이호 kocer@chol.com | 한국도시연구소 주민운동 실장. 관악주민연대 집행위원장 역임. 저서로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공저),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공저), 논문보고서로 「현장에서 배우는 주민조직방법론」 등이 있다.